

신안 고용률 87.5% '전남 1위'

통계청,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지난해 하반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고용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무안이었다. 영암은 전년보다 고용률이 4%포인트 증가하며 4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지역은 전남 22개 시·군 중 10개로 집계됐다.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무안이었다. 2020년 하반기 고용률 63.2%에서 지난해 61.7%로, 1.5%포인트가 줄었다. 이 같은 하락세는 2년 연속 지속됐다. 완도(-1.3%포인트)와 고흥(-1.2%포인트), 곡성(-1.0%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영암 고용률은 지난해 하반기 74.3%로, 전년보다 4.0%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률 증가 폭이 전국 10위권에 드는 전남 시·군은 영암과 장흥(3.7%포인트)이 있었다.

영암 고용률은 66.3%(2017년)→68.3%(2018년)→69.3%(2019년)→2020년 70.3% 등으로 오름세 70%대를 회복했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 가장 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광산구(64.7%)였고, 서구(65.2%), 남구(63.3%), 북구(60.9%), 동구(59.5%) 순으로 나

무안, 63.2%로 1.5% 감소

영암·장흥 증가폭 '전국 톱10'

광주 광산구 64.7%·동구 59.5%

타났다.

전남 시·군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목포(2.3%)였는데, 전년(3.8%)보다는 1.5%포인트 감소했다.

목포 취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10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2100명) 감소했다.

전남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신안(87.5%)은 실업률도 0.2%에 불과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농업, 임업 및 어업 비중이 67.1%에 달하는 신안은 15~64세 고용률이 87.5%로,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전남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은 여수는 전년보다 0.1%(-100명) 감소한 14만6900명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취업자가 많은 순천은 14만500명에서 14만5900명으로, 3.8%(5400명) 늘었다.

광주 실업률은 남구(3.2%), 북구(2.9%), 동구·서구·광산구(각 2.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15~29세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안(71.8%)으로, 전년(48.0%)보다

23.8%포인트나 증가했다.

무안(22.3%)과 곡성(27.1%), 장성(27.2%) 등은 15~29세 고용률이 최저 수준이었다.

광주는 서구(38.1%), 광산구(37.4%), 북구(35.1%), 남구(33.2%), 동구(33.1%) 순으로 높았다.

30~49세 고용률은 장흥이 89.6%로 가장 높았고, 50~64세는 신안(89.5%), 65세 이상은 고흥(69.4%)이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 9개 도의 시·지역 고용률은 60.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9개 도·군지역의 고용률(68.1%)도 전년보다 1.1%포인트 올라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7개 특광역시 구·지역의 하반기 고용률은 56.7%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9개 도의 시·지역 실업률은 3.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내렸다.

9개 도·군지역의 실업률(1.2%)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9개 도의 시·지역 가운데 근무지 기준 취업자 비중이 거주지 기준보다 낮은 지역은 경기 오산시(-19.7%포인트), 순천시(-10.5%포인트) 등이었다.

해당 지역에 살지만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중이 큰 '베드타운'이란 의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집에서 피부관리 하세요 2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9층 LG전자 매장에서 피부 미용 관리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흡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집에서 눈 건강과 두피, 피부를 가꾸려는 고객들로부터 인기다. <롯데쇼핑 제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품는다

아시아나 주식 63.88% 취득...공정위, 기업 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되,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보유·사용 중인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구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공항) 슬롯을 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다.

해당 국제노선은 서울~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홍콩·로스앤젤레스·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파리·무엇·광주, 부산~칭다오·다낭·세부·나고야·광

등이고, 국내 노선(편도 기준)은 제주~청주·김포·광주·부산 등이다.

이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두 회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도 반납해야 한다.

서울~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부산~베이징 등 노선이 해당된다.

다만 반납할 슬롯·운수권 개수의 상한은 노선별로 점유율 기준에 따라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전체 국제노선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항공사가 외국 공항 슬롯 이전·매각, 운임결합 협약 등의 체결, 국내 공항 각종 시설 이용 협력, 영공 통과 이용권 획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단기간에 새 항공사 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조적 조치가 완료

되는 날까지 '행태적 조치'도 부과하기로 했다.

두 기업이 결합한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급 좌석 수를 축소하는 것도 금지했고, 좌석 간격과 무료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도 유지하도록 했다.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되며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안에 양사 통합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통합 방안은 공정위가 승인해야만 실행할 수 있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우리나라 첫 대형항공사(FSC) 간 결합이며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장조치를 종합적으로 부과한 최초 사례다.

현재까지 태국 등 8개국의 심사가 끝났고,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심사가 남아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충돌하는 시장조치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추후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농협 광주공판장, 중도매인협의회와 업무협약

농협 광주공판장은 최근 광주시 서구 매월동 회의실에서 과일중도매인협의회·채소중도매인협의회와 '농협온라인농산물거래소 및 공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협온라인 농산물거래소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 도매시장의 오프라인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정구영 광주공판장 사장은 "업무협약으로 도매시장 점유율 확대와 거래방식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2000억원 매출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공판장(사장 정구영·오른쪽 세 번째)이 과일중도매인협의회·채소중도매인협의회와 '농협온라인농산물거래소 및 공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우크라이나 악재' 지속 코스피 1% 넘게 하락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22일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며 2700선에 턱걸이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7.01포인트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06.79 (-37.01)
↓ 코스닥	868.11 (-16.14)
↓ 금리(국고채 3년)	2.327 (-0.036)
↑ 환율(USD)	1192.70 (+0.60)

(1.35%) 내린 2706.7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8.72포인트(1.41%) 내린 2705.08에 출발한 뒤 악재 흐름을 이어갔다. 장중 한때 2690.09까지 후퇴하며 전날에 이어 재차 장중 2700선을 내렸다가 가까스로 2700선을 지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결성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했다.

또 자국 국방장관에 두 공화국을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지시하며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군 배치를 공식화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3820억원, 3300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외국인 순매도는 코스피 200 선물도 4000억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개인은 6707억원 매수 우위를 보여며 매물을 받아냈으나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6.14포인트(1.83%) 내린 868.11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484억원 순매도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296억원, 141억원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0조4058억원,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6조9570억원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오픈뱅킹 OK' 가입 이벤트

4월 3일까지

광주은행이 다른 은행 계좌조회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가입자 8300명에게 경품을 준다.

광주은행은 오는 4월3일까지 '오픈뱅킹 OK'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에는 광주은행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하거나 오픈뱅킹 서비스에 등록된 다른 은행 본인 계좌에서 5만원 이상 적금을 가입하면 응모할 수 있다.

문자 및 휴대폰 마케팅 동의를 하면 경품 행사에 자동 응모된다.

신규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8000명에게 편의

점 모바일 상품권 2000원권을 주고, 적금 가입 고객 300명에게는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조정민 광주은행 디지털영업본부장은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완성도 높은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치열해진 경쟁환경 속에서 지방은행의 한계를 벗어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축산농협, 업적평가 5년 연속 '전국 1위'

광주축산농협은 농협중앙회 '2021년도 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며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 농·축협 가운데 최고 성적이다.

농협중앙회 종합업적평가는 전국의 1118개 농·축협을 20개 그룹으로 나누어 경제, 신용, 교육 지원 사업, 조합원 복지 증진,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농·축협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업적평가 1위 사무소에는 2000만원 상당의 농업인 실익용 차량과 우수조합장상, 우수경

영자상, 유공직원 표창 및 특별 승진, 트로피와 우수기, 시상금 등이 수여된다.

김호상 조합장은 "전국 농·축협 최초로 종합업적평가 1위를 5년 연속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축산농협을 아껴준 조합원의 성원과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올 한해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 창출과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경영내실화를 다지고 조합원을 위한 환원사업에 더욱 힘을 쏟아 축산인의 실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채소가격 내림세

광주·전남지역 주요 농산물 가격이 2주 전보다 하락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우리지역 소비자들의 농산물 알뜰장보기를 돕기 위한 광주전남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 2204호'를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채소류 중 상추, 호박, 오이 등은 일조량 증가로 산지 출하가 원활한 반면 학교 방학에 따른 급식수요 감소와 코로나로 인한 소비둔화 지속으로 내림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실류 중 감귤은 산지 출하물량

이 감소하여 오름세를 보였으나, 딸기는 실황, 장희 품종의 본격적 출하로 물량이 증가하여 내림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2주간의 전망에 대해서 aT 관계자는 "기온하강에 따른 생육부진으로 상추, 호박, 오이 등 채소류 출하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학교 개학으로 급식수요가 증가하여 다소 오름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유통정보 KAMIS 홈페이지(kam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